

서호인의 '좌측담장'



좋은 야구가 보고 싶다

야구가 없는 겨울, 배구가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농구대잔치 세대의 위세에 오랜 기간 눌렸었고, 특정 팀이 우승을 독식해 팬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역 연고가 정착되고 각 팀마다 스타가 탄생했으며 매년 순위 싸움이 치열해져 이제는 배구가 명실상부 실내 스포츠의 최강자가 된 것이다. 이는 통계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몇 년 사이 배구는 평균 관중, 시청률 모두 라이벌인 농구를 앞지르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여자 배구의 약진인데, 올해는 최초로 시청률 1%를 넘었으며, 관중 수도 지난 시즌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몸을 던지는 수비, 강력한 스파이크, 길고 끈질긴 릴리, 새롭게 등장하는 루키들.. 여자 배구는 인기를 얻을 여러 조건을 스스로 갖춰 나가고 있다. 실제로 여자 배구는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 중에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여자 배구의 FIVA 랭킹은 9위(남

자 배구는 24위)인데,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무려 117개국이다.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 여자 배구 팬은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각 팀마다 배치된 외국인 선수 또한 세계적 레벨에 접근해 있으며, 주요 공격수로 활약하지만 수년 전처럼 모든 공격을 몰아주지는 않는다. 실력의 상향 평준화가 인기의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야구의 세계 랭킹은 여자 배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 WBSC 기준으로 무려 3위다. (1위 일본, 2위 미국, 4위 대만) 물론 여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즐기는 축구나 배구의 랭킹과, 국제적으로는 소수 스포츠에 불과한 야구의 랭킹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몇몇 팬들은 우리 야구의 수준 낮음을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그것은 세계 랭킹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다. 심심치 않게 터지는 핸드볼 스코어,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하

는 투수, 이따금 선보이는 우스꽝스러운 실책, 길어지지만 하는 경기 시간.. 인기를 잃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야구는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실제로 작년 KBO 총 관중 숫자는 전 해 대비 4% 감소했고 FA 계약은 전례 없는 냉기가 돌았다. 대형 FA 한 건(포수 양의지)을 제외하고는 선수 이동이 없었으니 별다른 이슈도 생기지 않았다. 팬들에게 프로 야구 선수는 팬 서비스에 도외시한 채 낮은 수준의 야구를 하면서 높은 연봉만 가져가는 이들로 인식되고 있다.

초기 프로 야구의 캐치프레이즈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이었으나 꿈과 희망은 고사하고 성 추문, 폭력, 음주 운전, 금지 약물 복용, 도박, 승부 조작 같은 사고로 얼룩졌으니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이나 주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실제로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는 투수 최대 유망주로 평가받으며 가을 야구까지 치렀고, 금지 약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뛰어난 성적에 이

유로 받을 수 있는 상은 거의 다 받고 있다. 프로 야구가 어린이에게 주려는 꿈과 희망이란 게 이런 걸까? 과정이 어찌 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게 진짜 교훈이라면 진짜 문제는 이 모든 것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팬들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기력이든 전체 팀의 순위는 가려질 테지만, 타격왕이든 홈런왕이든, 방어율 1위든, WHIP든, WAR이든 야구의 결과는 나온다. 과대 포장된 타격 수치도 결과라면 결과일 것이다.

한 이닝에 두 개 이상 나오는 사사구도 결과라면 결과일 것이다. 역시 한 이닝에 세 명 네 명 나오는 중간 투수도 결과이긴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결과물이고 연, 금지 약물 복용, 도박, 승부 조작 같은 사고로 얼룩졌으니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이나 주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실제로 고교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는 투수 최대 유망주로 평가받으며 가을 야구까지 치렀고, 금지 약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뛰어난 성적에 이

의료칼럼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이 희망이다



김지현  
첨단우리병원 관절센터 원장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의대생은 여러 과를 실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의대 실습 학생을 병원에서 폴리클 [Polycl: Poly(다수)+Clinic(진료과)]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은 의학 지식을 무조건 외우든 딱딱한 강의실에서 벗어나 실제로 환자를 보고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는 의대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폴리클 기간은 그동안 책으로만 배운 지식이 임상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비록 깊이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또한 각자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나중에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필자도 폴리클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정형외과를 선택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다.

정형외과로 결정하게 된 많은 이유들 중에서 적성과 특기가 주된 요인이었지만, 특히 정형외과의 큰 매력은 환자를 완치할 수 있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뇌졸중, 고혈압, 치매나 내과적 증중 질환들의 주된 치료는 완치보다는 관리와 예방이지만, 정형외과 병들은 원인을 제거하면 좋아지는 치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했던 정형외과였지만, 조금 알고 나니 정형외과에서도 의사를 좌절시키는 완치 불가의 많은 질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이 목이나 허리를 다쳐서 신경 마비가 되신 분들이다. 의학이 발달하고 21세기 최첨단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중추신경 영역이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기억에 남는 여러 환자 중에서 아직도 마음 속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은 환자는 30대 여성으로 척추 손상 후 허반신이 마비됐던 분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장애를 가진 채 사회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은 크나큰 어려움이나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정신적 반응 기제로 5단계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1단계는 부정(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것), 2단계는 분노, 3단계는 타협(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 4단계는 우울, 5단계는 수용인데 이중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다. 특히 4단계 우울 상태에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동료의 관심과 배려, 사회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어도 환자가 본인의 절망적 상황에 대한 갈등과 번민, 역경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는 정말 힘들다. 그래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 외래 진료실에서 48세 남자분을 만났다. 이 글을 쓰도록 동기를 주신 분으로, 20여 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허반신을 전혀 못쓰고 또한 신경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도 못하지만, 이번에는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돼 내원하셨다. 아무리 감각이 없더라도 골절로 인해 다리가 흔들리면 부기와 함께 부종이 생기고, 상처가 낫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고정 치료를 시행했다.

그런데 필자는 이 환자를 만나고 내심 큰 감동을 받았다. 이 분은 허반신 마비라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처럼 목소리도 밝고 활력이 느껴졌다. 환자는 자기가 할 일이 많고 바쁘다며 빨리 치료하는 방법을 문의해왔다. 정말로 그 환자분의 건강한 에너지가 치료하는 의료진도 느껴질 만큼 커서, 사실 의사로서 미리 허반신 마비의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내가 도리어 최후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들어'가 생겨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포기하고 싶은 극심한 고통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만 내게 감명을 주신 이 분처럼, 어떠한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 극복해 내면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긍정과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군대에서 훈련할 때 흔히 들었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돌이켜 보면 여유가 생겨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포기하고 싶은 극심한 고통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끝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만 내게 감명을 주신 이 분처럼, 어떠한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 극복해 내면 행복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고

검은 돈의 유혹, 조합의 경영 부실로 이어진다



이민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오는 3월 13일은 전국 1340여 개의 농·수·축협, 산림조합의 수장을 뽑는 날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조합별로 실시 하던 과거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4년 8월 1일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 선거이다. 선거인수로 보면 공직선거의 4240만 명(제19대 대선 기준)의 6%인 270만 명이 참여한다.

그래서인지 조합원이 아닌 흑자들은 조합장 선거를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각 조합은 이미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어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가족,

친지 등까지 포함하면 조합과 상관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농업을 식량 자급에 대체하고 기후 변화에 완충 역할을 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244조 원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조합원의 생업이 경제·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걸로 볼 때, 조합장 선거는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의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농업 경영 여건은 물가 상승, 환율·유가·최저임금 인상, 주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가 대응책의 바로미터인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총 예산의 3.1%인 14조 6000억 원(2019년 기준)을 농업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나,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농업인들의 자발적 조직인 조합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안정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 각 조합의 수장인 조합장을 잘 뽑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조합별 평균 조합원 수는 2000명 정도로 소규모이고 대부분의 조합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도, 조합장 선거는 조합 자체적으로는 공정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합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왔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한 후부터는 과거보다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긴 하나 돈 선거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학연·지연 등 연고 관계로 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고, 불법 선거에 대한 범죄 의식이 약하며, 한정된 선거인으로 인해 돈으로 표를 사더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에 기인한다.

결국 '조합원들의 군수'라 불리는 조합장이 되기 위해 조합 경영의 비전 제시보다 몇 억씩의 '검은 돈'을 써서 조합원을 매수하여 당선된 사람이 과연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부(富)와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조합장이 임기 4년에 조합 인사권, 억

대 연봉을 받는다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모든 조합 재정이 탄탄하지는 않을 뿐더러, 당선인이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한 이권 개입, 청탁 인사 등의 유혹을 뿌리치고 체적으로만 공정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합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왔다. 이런 선거 폐습이 누적되면 경영 능력은 뛰어나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선거의 링' 위에 오를 선수가 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빈약한 후보자들만의 경쟁이 무능한 당선자의 경영 부실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입는다는데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 관리'라는 본연의 직분을 다하겠지만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알 수는 없다. 실질적 심판자인 조합원이라면 누가 성실하고 사업적 수완이 있는지 후보자들의 면면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한 순간의 '검은 돈'의 대가로 굶아 터지는 조합의 경영 부실을 통보받지 말고, 경영 비전과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가까운 시일내 두툼한 배당금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물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고려인 노동자 부당한 처우 개선 시급하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노동자들 상당수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광주 YMCA 시민권익 변호인단이 지난 17개월간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벌인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담 건수의 90%가 임금 체불 문제였다. 총 594건 중 536건이 임금 체불로 나타난 것인데 나머지는 산재와 비자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려인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은 개인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나타났다. 이들은 수년간 일을 하면서 연차수당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으며 산재를 당하고도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했다.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노동자들도 수십 명이 넘는다. 시민권익 변호인단은 고려인 노동자들이 한국말에 익숙하지 않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했다. 약덕 업체들은 고려인 노동자들을 돕기보다는 되레 열악한 사정을 악용하고 있다.

한전 배구단 광주 유치 이번엔 꼭 성사시키자

빛가람 혁신도시에 등지를 튼 한국전력의 남자 프로배구단 '빅스름'(VIXT ORM)의 연고지를 광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사 이전 5년째를 맞았는데도 한전과 지역의 소통이 부족한 데다 광주·전남에는 동계 스포츠 프로팀이 없어 지역민의 여가 향유권 역시 타 지역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배구단 연고지 광주 이전은 한전이 분사를 나누로 옮긴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체육계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됐다. 광주시는 당시 수원에 기반을 둔 빅스름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노후한 염주체육관을 배구 전용 경기장으로 보강하고 흥보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한전은 전용 경기장 준비 기간이 길고 연습 경기를 할 팀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원과 3년간 재계약하는 한편 2019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수원과의 연고지 계약은 오는

광주에는 고려인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 감정기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항일운동을 지원했던 고려인들의 후손들이다. 독립을 염원하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던 선대와 달리 이들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모국에서 이주 노동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고려인 노동자들에 대한 악성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구청과 노동당국은 철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이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권익 변호인단은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소송과 구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는데, 약덕 업체들은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3·1만세 운동 100년이 되는 해, 고려인들이 모국에서 임금 체불과 산업 재해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행정 당국과 시민 모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다.

4월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시배구협회는 최근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한전 배구단이 유치되면 전국에서 배구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활성화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도 기대된다. 특히 프로 야구와 축구에 이어 '겨울 스포츠의 꽃'인 배구가 가세하면 지역 초·중·고 및 대학 배구 팀의 우수 선수 발굴은 물론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한전 분사가 나주로 이전했음에도 배구단의 연고지를 수도권에 두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한국도로공사 여자 배구단의 경우 이미 분사가 이전한 경북 김천으로 옮겨, 창단 후 첫 우승을 달성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한다. 한전 역시 럭비 팀의 연고지를 전남으로 옮겼고 한전 공대 입지도 나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한전 배구단은 광주로 오는 게 타당할 것이다.

無等鼓

오래만이 시집을 썼다. 오래된 시인 김종삼(1921-1984)의 대표작을 모은 '김종삼·매혹시편'이다. 그의 시를 좀 더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문화 공간 '김빛과'에서 열린 '시와 음악의 고독한 축제' 덕분이었다. 그의 시를 아끼는 이들이 만든 '종삼포럼'이 주최한 올해 행사는 '용당포·아우슈비츠·금남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서는 세 편의 시가 낭송됐고, 세 곡의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마음을 뺏긴 건 이 시 '아우슈비츠 라게르'였다. 어찌면 행사장으로 오는 길, 서울에서 원정은 '대극기 부대'의 5·18 왜곡 발언을 귀로 들으며 느꼈던 막막함이 마음에 남아선지도 모르겠다. '밤하늘 호수개엔 한 가족이/ 앉아 있었다/ 평화스럽게 보이었다 // 가족 하나하나가 뒤로 자빠지고 있었다/ 크고 작은 인형 같은 사체들이다/ 핏가루가 묻어 있었다/ 언니가 동생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모기 소리만 하게/ 아우슈비츠 라게르'(전문)

낭송에 이어 100만 장 넘게 팔린 헨릭 고래츠키의 '교향곡 3번 슬픈 노래'(1976) 2악장이 이어졌다. 한없이 느리

게 흘러가는 멜로디에 소프라노 돈 업소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가사는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 목숨을 잃은 18세 소녀가 벽에 새겨 놓은 기도문에서 따왔다.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선율과 목소리만으로도 감동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자형 지휘자와 광주시향의 말러 '부활' 관련 영상도 상영됐고 '민간인' 등의 시와 슈베르트의 '즉흥곡'도 만났다.

'바닷가에 매어 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며칠도 노를 저어 나가서/ 헤엄췌이의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려도//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어부' 전문)

시를 죽 읽어 보니 '시인의 시인'으로 불린다는 그를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술과 음악을 사랑했던 시인에 '매혹당환' 이들이 '종삼종삼'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시를 읽고 음악을 듣는 모임이 말리까지 찾아와 준 덕에, 잊고 있던 귀한 시인 한 명을 알게 됐고 위안을 받았다. 광주의 시인들도 그렇게 '발견' 되면 좋겠다. /김미은 편집부작가·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문화부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32	220-0652	업무국	220-0551
경제부	여론매체부	220-0692	(FAX 222-0195)
220-0663	220-0692	다자언설	220-0536
사회부	220-0664	서울지사	02-773-9331
220-0642	220-0693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